

참다운 건강 사회건설에 대한 투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건강 뿐 아니라 다방면의 다각도로 투자를 요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건강분야의 슬로건이나 이슈가 무엇일까? 건강의 지표는 어떤 것인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78년 “세계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기원 2000년까지(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라고 내걸고 건강선언을 공포했다. 2000년이 육박해도 이 목표가 도저히 달성될 수가 없을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1998년 자카르타에서 건강재선언을 하게 되었다.

질병의 치유에 초점을 두고 발달해 온 의과학은 질병의 치유라는 거대한 부담을 거머쥔 채 질병의 예방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그리고 건강의 유지뿐만 아니라 증진에 초점을 두는 정책, 사업계획 및 추진 그리고 평가에 힘쓰게 되었다. 1986년 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선언이 발표된 후 증진의 보건관계 법규의 제정과 시행, 건강관리(health care)에 못지 않게 보건교육에 역점을 두게 되고 보건교육이 다시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방면에서 급격한 발전과 변천을 가져 왔고 인간의 환경도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가져 왔다. 그래서 WHO나 보건,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건강,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건의나 의료차원 이외에 총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참다운 건강 사회건설에 필요한 요소를 연구하고 정책수립, 행정시행으로 발전시켜 왔다.

1998년 6월 카리브해협에 있는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산 후안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건강증진·건강교육학회 세계대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주요 관련의제로 평등(equity), 권리확대(empowerment), 환경(eniroment), 그리고 경제(economics)를 선정하였다.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확보에는 이 네가지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남존여비와 같은 불평등 때문에 부녀자가 건강에 대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여자나 또 어린이는 병이 나도 의·병원에 갈 수 없는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권리확대의 주장의 필요성도 부녀자나 노년자, 어린이에게 많이 본다. 환경불량 특히 수질오염, 대기오염, 최근에는 소음과 진동이 시민건강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건설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건법규, 보건관리, 보건교육 등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제반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에
밀접한 협력과 시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김 명 호

연세대 명예교수, 네팔 발랏트폴보건대학원장

2001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국제건강증진·건강교육학회(International Union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세계대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밀접한 요소로 윤리(ethics), 확증(evidence), 설득(또는 주장)(advocacy) 및 협력(partnership)을 선정해서 의제로 삼았다. 이 네가지 사항도 정말로 건강한 사회건설 혹은 건강한 인격자인 개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 여기서 윤리는 물론 생명윤리(bioethics)를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인공유산, 안락사, 장기이식, 기타 최근에는 인간복제까지 논의되어 인간이 과연 생물이냐 기계냐 상반되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마저 있다.

확증은 보건교육에서나 많은 의학 특히 보건관계 연구에서 많이 주장되는 중요한 일이다. 지식이나 태도에 머물지 않고 실천을 기대하는 보건교육에서 효율적인 추진은 확증의 제시없이 는 힘든 일이다. 설득이나 주장은 보건교육 수단 또는 방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보건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긴요한 요소이다.

끝으로 협력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보건사업은 옛날 의사중심으로 실시할 때와 오늘날의 팀웍시대와는 그 효과나 결과에 있어 확연히 다르다. 보건정책도 다른 사업관련 정책과 협력없이 는 그 수행

이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건설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건법규, 보건관리, 보건교육 등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제반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에 밀접한 협력과 시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네팔에서 10년간 의료봉사와 보건요원 교육사업을 하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나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나 기관과 협력해야 해결되는 실례를 많이 보았다. 언젠가 백인여성이 혼자 히말라야로 올라갔다가 행방불명이 된 기사를 읽은 일이 있었다. 문득 생각나는 구약성경(전도서 4:9-12)의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임이라. 혹은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